

광주·전남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중국에서 밀려온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16일까지 광주·전남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16일부터 17일 새벽까지 내리는 비로 16일 오후부터 '보통'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기 정체와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으로 광주·전남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한 때 나쁨 수준을 보였다. 오후 들어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호흡기 질환자 등 건강 관리 주의해야”

내일까지 5~30mm 비...평년보다 포근

16일 오후부터는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0~30 $\mu\text{g}/\text{m}^3$), 보통(31~80 $\mu\text{g}/\text{m}^3$), 약간나쁨(81~120 $\mu\text{g}/\text{m}^3$), 나쁨(121~200 $\mu\text{g}/\text{m}^3$), 매우 나쁨(201~300 $\mu\text{g}/\text{m}^3$), 위험(301 $\mu\text{g}/\text{m}^3$ 이상) 등으로 분류된다.

16일 아침부터 17일 새벽까지 광

주와 전남에는 5~20mm의 비가 예보됐다. 전남 남해안에는 10~30mm의 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상 3도의 분포를 보였으며, 낮 최고 기온도 영상 10도~영상 13도를 기록했다.

평년 최저·최고기온(영하 7도~영상 7도)보다 4~5도 가량 높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16일 정오까지 ‘나쁨’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과 야외 활동을 삼가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비가 온 뒤에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 다만 오는 19일 아침부터는 다소 쌀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용규 기자

사고위험 방치 339개 현장 사업주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사고위험을 방치한 339개 현장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15일 화재·폭발 및 질식사고와 타워크레인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973개 현장에 대한 동절기(2017년 11월8일~12월20일) 감독결과 콘크리트 갈탄 양생 작업중 질식에방조치를 소홀히 했거나 화재 위험장소에서 용접을 하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339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화성동탄 73블럭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한 A주택의 경우 외부감 작업시 작업발판 미설치, 콘크리트 갈탄 양생중 출입 통제 미비 등으로 과태료 156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강릉시 교통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한 B건설은 용접작업시 불꽃 비산방조치를 하지 않고 승강기 개구부에 추락방지용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205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고소작업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98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651개 현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18억5000만원)를 부과했다.

아울러 이번 감독에서 최근 대형사고가 다발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한 결과 155개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43개 현장을 사법처리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계획서 미작성(28건), 크레인의 허용하중 미표시(8건), 인양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등 출장이 손상(3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한라산에 흠뻑 빠진 탐방객. 일년 중 가장 추다는 대한(大寒) 절기를 5새 앞둔 15일 제주 한라산 영실 탐방로에 한 탐방객 부부가 찾아와 깊어가는 겨울산의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술마시다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외자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후 다시 폭행을 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생명이라는 가장 귀중한 가치를 상실하게 됐다. 합의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5시께 전남 한 지역 교량 아래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당시 52세) 씨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 끝에 앞쪽에 있던 B 씨의 가슴을 발로 1회 때려 뒤로 넘어뜨리는가 하면 철제외자를 던져 B 씨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1시간 여 뒤 B 씨와 다시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 또는 발로 B 씨의 복부를 여러차례 폭행, 같은 날 오후 7시50분께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 씨는 혈관 과열로 인한 대량 실혈(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했다.

A 씨와 변호인은 B 씨가 사망한 A 씨의 가족과 관련해 약담을 한 데 대해 화가 나 주먹으로 B 씨의

왼쪽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다. 철제외자를 들어 땅에 앉아있던 B 씨의 가슴 부위 쪽으로 밀어 B 씨가 철제외자와 함께 넘어지게 한 사실이 있을 뿐 발로 B 씨의 가슴을 1회 가격해 뒤로 넘어뜨리거나 철제의자로 B 씨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B 씨가 두 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기에 이를 때어내는 과정에 B 씨가 넘어지게 한 사실은 있지만, 주먹 또는 발로 B 씨의 복부를 여러차례 때려 B 씨를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폭행과 B 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준정 기자

자카르타 증권거래소 발코니 붕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심가에 있는 증권거래소에서 15일 낮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매몰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지매체 메트로TV, 싱가포르 스트레이티아뉴스 등은 자카르타 증권거래소 단지의 타워에서 이날 낮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 발코니가 무너졌다고 보도했다.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밖으로 긴급 대피했다. TV 화면과 소셜미디어에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급히 밖으로 피신하거나, 건물 밖에서 서성이며 모습의 영상이 나오고 있다.

스트레이티아뉴스는 현지 매체들이 사고 현장에 수 명이 매몰돼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원인과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테러 공격이란 보도는 없다고 스트레이티아뉴스는 전했다.

日 60대 여성, 고양이균 감염돼 사망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60대 여성 1명이 고양이 등 동물에게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감염에 의해 지난 2016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후생노동성이 애완동물들과의 과도한 접촉을 피하도록 주의를 호소했다고 NHK 방송이 15일 보도했다.

이 여성은 ‘코리넨테리움 우루세란스’라는 균에 감염돼 2016년 5월 호흡곤란에 빠져 사망했다. 이 균은 개나 고양이 등 동물들을 통해 감염된다.

후생노동성은 숨진 여성이 평소 야외에서 길잃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 어왔다면, 이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염되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며, 심한 경우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일본에서 25명의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지만 이로 인한 사망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감염되더라도 항생제 투여로 치료가 가능하다.

후생노동성은 이날 자치단체와 의사회 등에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후생노동성은 이와 함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있는 애완동물과의 과도한 접촉을 피하고 동물을 만진 후에는 손씻기 등을 철저히 하도록 호소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감염 사례는 아직 없으며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또 “감염됐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멕시코 범죄조직간 충돌로 시신 10구 발견

멕시코 동부의 베리크루스주에서 갱단끼리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전투가 발생, 10명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주 정부가 밝혔다.

베리크루스 주의 미겔 앙헬 유네스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전날 발견된 시신에 대해 발표하면서 주도 할라파 시내의 경비를 강화하고 정부가 치안강화에 나선다고 말했다.

조각난 시신들은 할라파 시내 중심가의 중앙 버스 터미널로부터 겨우 500m 떨어진 주택가에서 발견되었고 대부분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유네스 주지사는 말했다.

석유생산량이 풍부하고 그림처럼 아름다운 베리크루스 주는 새해 초부터 갱단들의 폭력이 잇따랐으며 이미 파두성이 출발을 보였다. 인근의 한 관광도시에서는 택시 지붕에 잘린 머리 5개가 놓인 것이 발견되었고 또 다른 도시에서는 4개가 더 발견되었다.

터키 국내선, 흑해로 빠지기 직전 멈춰

14일 터키의 흑해 항구도시 트라브존 공항에서 터키 국내선이 착륙 중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가파른 언덕 아래로 굴러갔으나 흑해 바다물로 처박히기 직전 멈춰서는 사고가 있었다.

터키 페가수스 항공의 보잉 737-800기에 탔던 168명의 승객 및 탑승객은 폐착에 빠졌지만 결국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빠져나왔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수도 앙카라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이륙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관영 아나톨루 통신 등이 제공한 현장 사진에 따르면 비탈은 단단하지 않고 진흙 땅이었다. 제트가 앞머리는 흑해 바다물로 내리꽂히기 2~3m 앞에서 미끄러운 땅을 딛고 멈췄다.

국민건강보험
정부 3.0

다들, 안녕하시죠?

우리 남편은요...
양치로 죽어 있습니다.

다들 건강검진으로 조기발견해서 수술도 받고,
아직 3개월에 한 번 검사만 받으면 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돌이켜 보면
늦치고 지내, 그래서 잇고 지내 시가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맘을 다시 돌아봅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법무아산검진센터 중재조정팀원,
자활치료 중인 민혁군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건강검진

구강
검진

영양
건강검진

암
검진

발생률이 높고 조기진단으로 치료할 수 있는 5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합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간이 혼잡하므로,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